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사업 불투명

조합장 교체 놓고 내부 갈등 심각
신축 부지내 교회 보상문제 갈등
기존 업무 대행사와도 소송전
387명 조합원 대규모 피해 우려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이 올 연말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이면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2021년 4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광산구 하산동에 495세대 규모의 신축아파트 건설을 위해 387명의 조합원을 구성하고,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일부 조합원들이 신축부지 내에 있는 교회 보상 문제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분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한 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다.

조합장이 새롭게 바뀜에 따라 기존 업무 대행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등 사업주체마저 교체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모델로 꼽혔던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부지에 30억원을 가압류했으며, 현 조합이 전 조합과 맺는 교회 부지 매입 협약서마저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교회측이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9월 3일 열린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권리가 반영되지 못한 총회로 무효"라면서 광산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까지 신청하기로 하는 등 조합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송정리버파크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 '강압적 분위기 조성', '조합원 의사 묵살' 등 조합원의 권리가 반영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지난 9월 3일 열린 임시총회는 최소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자 수가 몇 명인지, 또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수는 몇 명인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적지 않은 수의 용역업체 직원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있었으며 조합원 아닌 상당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회의의 성원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당시 임시총회 속기록과 영상물 열람 또는 공개 등을 요청하고 있다.

조합원 K씨는 "내 집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뿐"이라며 "전현직 조합 집행부의 완만한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현님 전창현 장윤경 박석원 최희정

광산구, 제31회 광산구민상 수상자 선정

'광산구민의 날' 기념행사, 효·나눔복지 등 5개 분야 시상

광주 광산구는 "제31회 광산구민상 수상자로 김현님 광산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장, 전창현 광산구주민자치협의회장, 장윤경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석원 한마음새마을금고 이사장, 최희정 자원순환가게 활동가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민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광산구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효·나눔복지 부문 수상자인 김현님 협의회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 등 주민을 위한 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자치공동체 부문 수상자 전창현 협의회장은 주민의 공감 바탕으로 지역 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협치형 주민자치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교육 부문 장윤경 교수는 '우다다! 광산 SDGs 프로젝트', '글로벌 건강교육 그램책 프로젝트'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와 광산구 교육정책 특화에 공헌했다.

박석원 이사장은 저신용,저소득의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출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무담보 1%희망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친환경 부문 최희정 활동가는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운영, 환경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실천 확산에 앞장섰다. 제31회 광산구민상 시상식은 26일 개최되는 광산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에이스 페어' 문화 콘텐츠 수출 창구 역할 '톡톡'

7600만달러 수출계약·추진, 1억9000만달러 투자 상담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 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문화 콘텐츠 수출 창구 역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무리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시 기간 국내외 바이어 170여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통해 1억9000만달러 상당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참여 업체들은 7600만 달러 상당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104개 업체가 102개 부스를 구성해 20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달 22~25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을 주제로 열린 전시는 온라인 29만7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33만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앞으로도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광주에서 정착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 에이스 페어가 광주를 대표하는 마이스(MICE) 산업으로 자리잡고 문화콘텐츠 업체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화콘텐츠 초기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파일럿 제작비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투자상담회 개최를 통한 투자자 연결,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식점 노후주방시설 개선사업

광산구, 최대 100만원 지원

광주 광산구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연면적 100㎡ 이하 식사류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주방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의 노후한 주방 환기 시설 설치 비용의 80%에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소규모(100㎡ 이하) 중국음식, 치킨 취급 음식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이며, 오는 21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광산구 식품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 상태 개선과 함께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아트페스티벌 '별무리 예술장터' 열린다

14~15일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광산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2022 광산아트페스티벌 '별무리 예술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술품의 전시·판매·경매가 이뤄지는 아트마켓 ▲각종 생활용품 구입이 가능한 플리마켓 ▲통기타, 댄스, 마술쇼 등 볼거리가 풍성한 문화공연 ▲시민 맞춤형 예술체험프로그램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각예술인 60여 명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에서는 100만 원 이하 중저가 소·작품이 판매되고, 14일 오후 6시에는 미술품 경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예술인에게는 활동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 일상의 활력과 힐링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무리 예술장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8)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 기업 현장소통 나서

빛그린산단 동진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소통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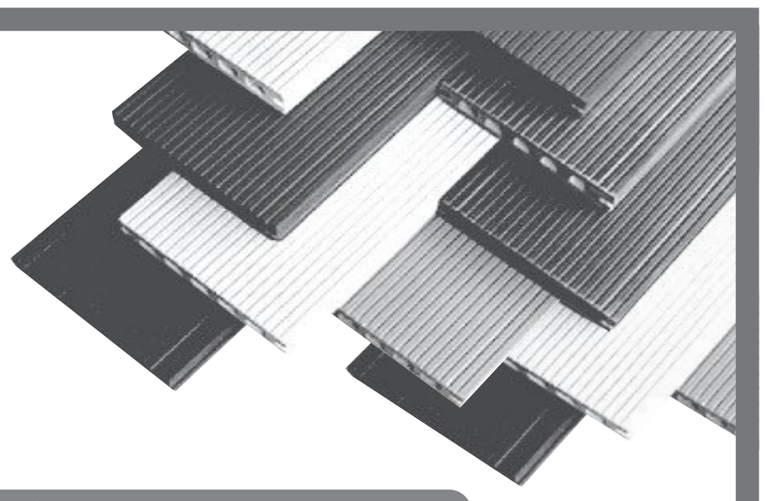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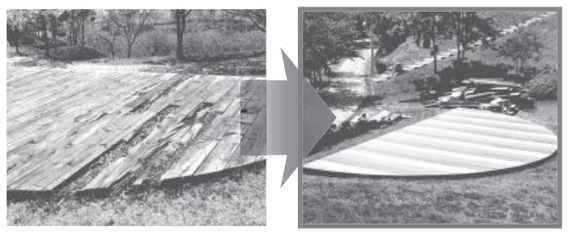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빛그린산업단지에 소재한 동진기업(주)(대표 양오열)을 방문해 기업운영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간담회를 가졌다.〈사진〉

동진기업(주)은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원통형 2차 전지 관련 국내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구청장은 차세대 고효율, 고용량 에너지저장 장치인 슈퍼커패시터 제조 등 동진기업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듣고, 더 나은 기업환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산을 민선 8기 구정 주요 목표로 내건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통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광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다양한 기업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